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완결되신 영

성경: 요 1:14, 29, 7:39, 20:22, 고전 15:45하, 갈 3:14, 빌 1:19

- I. ‘완결되신 영’이라는 용어는 그 영께서 과정을 거치셨고, 따라서 완결되신 영이 되셨음을 함축한다 — 요 7:39, 갈 3:14.
- A. 성경에 있는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결국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복합되신 영이 되셨다 — 빌 1:19.
 - B. 완결되신 영에 관해서, 기독교 교사들 편의 무관심과 무지함과 결함과 오해와 잘못된 해석은 극에 달하였다. 따라서 완결되신 영에 관한 진리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
- II. 완결되신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의 삼일 하나님이다 — 요 7:39.
- A. 삼일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시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은 경륜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 요 1:14, 히 9:14, 고전 15:45하.
 - 1. 하나님은 결코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뀌실 수가 없고, 오직 경륜적인 면에서만 바뀌실 수 있다.
 - 2.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과정을 거치셨다는 의미에서 바뀌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바뀌셨지만, 그분의 본질 안에서는 바뀌지 않으셨다.
 - B.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과 관련되고, ‘완결되셨다’는 것은 과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완결되신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 요 7:39.
 - C. 완결되신 영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복합체이다 — 요 7:39, 행 16:7, 롬 8:10-11, 빌 1:19.
- III. 완결되신 영에 관해 세 가지 주요한 핵심 요점이 있다.
- A. 하나님의 영은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계시된 것과 같이 복합되심으로 복합된 관유가 되셨다.
 - B.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계시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
 - 1.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창 1:2), ‘그리스도의 영’(롬 8:9)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이신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 당시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 2.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고,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 눅 24:26, 빌 1:19.

3.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이신 마지막 아담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실재를 포함하여 신성한 요소와 인성의 요소를 모두 갖고 계신다 — 고전 15:45하, 행 16:7, 롬 8:9.
- C. 그 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에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과 어린양의 일곱 눈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여겨진다.

IV. 완결되신 영은 부활 안에서 아들에 의해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다 — 요 20:22.

- A.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다는 것과, 부활 안에서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완결되신 영이신 그분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 요 1:29, 20:22.
 1.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성령은 7장 39절에서 예기되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과 8절, 13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이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2. 제자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불어 넣으신 그 그리스도가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 고전 15:45하.
 3.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그들 안에 생명과 모 든 것으로 넣어 주셨다.
 4.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이것은 이 영께서 그리스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영은 아들의 숨이시다.
 5.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고, 이 영은 우리의 숨이시다.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들이쉬는 거룩한 숨이 되셨다 — 고후 3:6, 17, 요 1:29, 20:22.
- B. 숨이신 완결되신 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다.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고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 갈 3:2-3, 14, 빌 1:19, 계 2:7.

V. 완결되신 영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 — 요 7:39.

- A.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며, 동시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시는데, 이러한 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 — 마 28:19, 고후 13:14.
- B.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다만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라,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 빌 1:19.
- C.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께서는 ‘복잡한 요소들’이 없다. 그러나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 출 30:23-25.
 1.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갖는다 — 빌 3:10.
 2. 완결되신 영, 곧 복합되신 영이라는 놀라운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 — 출 30:23-25.

D.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완결되신 영 안에 살고 이 영을 체험할 수 있다.

1.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유일한 복이신 그 영을 받는다 — 갈 3:14.
2.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공급을 받는다 — 엡 1:22, 히 8:1-2.
3.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 롬 5:10, 17, 21.
4.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종(種)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산다 — 요 3:3, 5.
5.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의 실재인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산다 — 요일 1:3, 7, 행 2:42, 롬 12:5.
6.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다 — 요 17:21, 23, 엡 4:3.
 - a. 참된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 요 17:21, 23.
 - b. 진정한 하나는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의 연합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완결되신 영

‘완결되신 영’이라는 용어는 그 영계서 과정을 거치시어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내포한다. 구약과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은 결국 완결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되신 영이 되셨다. 완결되신 영에 관해서 기독교 교사들의 무관심과 무지함과 결함과 오해와 잘못된 해석은 극에 달하였다.

완결되신 영에 관해 세 가지 주요 중점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은 복합되셔서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계시된 것처럼 복합되신 영이 되셨다. 둘째, 요한복음 7장 39절에 분명히 언급된 것처럼, 그 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 셋째, 그 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에 특별히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과 어린양의 일곱 눈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세 가지 중점은 거의 모든 성경 학도들과 성경 교사들이 간과해 온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신성한 삼일성의 다른 두 위격과 같은 위치에 계시는 위격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강조하여 언급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 의하면,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구별되는 위격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수단만이 아니라 위격이다. 17세기에 흠정역이 발행될 때까지만 해도 그 영을 말할 때 ‘그것’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흠정역의 번역자들은 로마서 8장 16절을 “그 영 그것”이라고 번역했다.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 영은 위격이시므로, 이 구절에 대한 합당한 번역은 “그 영 자신”이어야 한다. 그 영에 관한 모든 무시와 무지와 오역과 그릇된 해석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바로잡아졌고, 그 영에 관한 진리는 완전하게 되었다. 19세기부터 미국 표준역, 미국 새 표준역, 확대역, 다른 근대의 번역본들에서 그 영을 ‘그것’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용법은 수정되고 바로잡아져 ‘그분 자신’으로 번역되었다. 주님은 지난 몇십 년간,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그분의 영에 관해 다음의 중점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께서 (한 힌의 기름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신성, (네 가지 향품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인성, (몰약과 육계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효능, (창포와 계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 (네 종류의 향품의 양을 말하는, 중간의 단위가 이백오십 세겔씩 둘로 나누어진, 세 단위로 된 오백 세겔로 상징된) 신성한 삼일성이 복합된 것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기름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더해진 관유인 복합되신 영이 되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반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는 아직 생명 주시는 영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음을 계시한다. 육체 안에 계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후에,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예수님의 영(행 16:7), 그리스도의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롬 8:9),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 생명의 영(롬 8:2)이라 불리신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결국 일곱 영, 즉 어두운 시대에 교회의 하락을 처리하시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셨다. 복합되시고 변형되시고 강화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의 영, 심지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이 되셨다(계 22:17하).

완결되신 영은 주님의 회복의 주요 항목의 중점 중 하나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 중점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은 완결되신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죽음과 그 효능, 부활과 그 능력으로 복합되시어 복합되신 영이 되셨고, 복합되신 영은 생명을 주시며 내주하시는 영이시다. 이러한 복합되신 영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재이자 실재화이시며,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지난 몇십 년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위의 모든 중점들은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위대하고 중요한 항목들이다.(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요 항목의 중점, 34-40쪽)

삼일 하나님은 교리적인 이해를 위한 분이 아닌 우리의 체험을 위한 분이심

성경은 결코 삼일 하나님을 공허한 교리로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복원에서 하나님의 영을 언급한다. 그때 땅은 황폐하고 공허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품고 계셨다(창 1:2). 이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와 영으로 불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실 때, 육체를 범속한 것들과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성령이 왔다(마 1:18, 20). 삼십삼 년 반 후에 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후에 여전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다(마 28:19). 하나님의 경륜의 적용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완전히 계시되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러한 필요가 있는 그 시기에 삼일 하나님이 계시되었음을 보여 준다.

기억하라. 삼일 하나님은 결코 공허한 교리가 아니다. 공허한 신학적 교리와는 절대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교리적인 이해나 신학적인 연구를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되기 위한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이 다만 교리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분은 우리의 체험을 위해 계신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교리로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오직 우리의 체험으로만 알 수 있다. 당신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들로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심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계시 후에 그 영께서 적용하기 위해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전적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마지막 분이신 그 영에 의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 영은 세 분 중 마지막 분으로서 ‘머리’가 아닌 ‘꼬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전혀 그렇지 않다! 아버지, 아들, 영 가운데서 첫째 분과 마지막 분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 아버지, 아들, 영에서 마지막 분이신 그 영은 완결이시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하나님은 셋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이면서 셋인 분이시다. 그 셋의 완결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개시(開始)인 아버지에게 있지 않다. 또 과정인 아들에게도 있지 않다. 삼일 하나님의 완결은 그 영에게 있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해 무언가가 언급될 때 그 영도 언급된다. 근원은 아버지이고, 과정은 아들이며, 완결은 그 영이다. 그러므로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아버지, 아들, 영의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은 단지 하나의 계획이었다.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신 후에야 그것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아버지, 아들, 영이 언급된다. 계획은 개시(開始)이고, 성취는 과정이며, 적용은 완결이다. 완결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있지 않고, 그 영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결이 그 영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아들이나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시고, 그 영은 아들의 실재화이시기 때문에, 완결이신 그 영은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도 포함하신다. 수학에서 25 더하기 15 더하기 30은 70이다. 70은 합계로서 25, 15, 30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완결이신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포함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그 영 안에서 완결되신다.

그 영의 완결

우리는 완결되신 영을 보다 깊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가 이 메시지에서 교통하고 싶은 중점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지만, 그것은 완결되신 영이 아니다. 여호와의 영과 성령도 완결되신 영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완결되신 영이 계시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후였다. 이 영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영, 구약의 여호와의 영, 마태복음 1장의 성령과 다르다. 이 영은 완결되신 영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되었고, 이제 그것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 적용은 완결되신 영, 다만 총체적인 영이 아닌 궁극적으로 완결되신 영에 의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완결되신 영께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영께서는 인성이 없었으며, 여호와의 영이나 마태복음 1장의 성령께서도 인성이 없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1장의 성령은 다만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셨을 뿐, 인성은 아직 신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간적인 요소를 갖고 계시지 않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이단에 이를 수 있다고 간주한다.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성을 소유할 수 있느냐고 따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엄청난 계시임을 보았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신약 서두의 성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었을 뿐 신성 안에 인성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인성이 신성 안으로 넣어졌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되시어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와 인성과 결합시키시는 것이 요구된다. 그분은 직접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 동안 사시면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찬탄하고도 분명하게 표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찬탄히 표현하신 후 십자가로 가서 죽음을

통하여 옛 창조물을 끝내셨다(골 1:15, 20, 롬 6:6). 그다음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부활 안에서 새 창조물을 온전히 산출하셨다. 이 부활 안에서, 그분은 먼저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높이셨으며, 그것을 신성 안으로 이끄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이와 동시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옛 창조물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이 거듭났으며(벧전 1:3), 더 나아가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은 엄청난 ‘되심’이다. 하나님의 영은 육체 되심, 인생, 죽음,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 그분은 먼저 인성을 입으시고, 그다음 부활 안에서 인성을 신성 안으로 이끄셨다. 이로부터 생명 주시는 영이 나왔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다. 육체 되심, 인생, 죽음, 부활의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변화가 없이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갖가지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갖가지 요소들이 더해진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러므로 ‘되다’라는 단어는 엄청난 것을 포함한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 모든 계시들이 분명하게 해방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문제를 본 사람은 극소수이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의 “마지막 이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 안의 말씀이다. 주님께 감사하자. 그분은 이 모든 해 동안 이 모든 요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오늘날 생명 주시는 영은 완결되신 영이시다. 따라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한다. 명백히 성령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영도 창세기 1장에 계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옛 창조물만 있었고 아직 새 창조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창조가 개시(開始)되었을 때 그 영께서 계시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영이 되셨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말하는 바이다.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계시되어 있는 그 영은 믿는 이들 안에서 변화의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그 영이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 영은 또한 복합되신 영이심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의 건축에 관한 기록인데, 22절부터 30절까지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명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다. 그 방법은 올리브기름 한 힌을 취하여 네 가지 향품과 함께 복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름은 관유가 되었다. 한 힌의 올리브기름에서 숫자 ‘1’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신성의 요소를 말한다. 네 가지 향품에서 숫자 ‘4’는 사람을 나타내며 인성의 요소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둘의 연합은 신성 더하기 인성이다. 더 나아가 인성에 네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몰약, 육계, 창포, 계피이다. 간단히 말해서, 몰약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향기로운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습지나 진흙탕에서 자라 나와 공중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갈대인 창포는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초월하는 부활을,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효능을 상징한다.

이 거룩한 관유 안에 신성의 면(面)은 인성의 면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죽음은 한 가지 효능을 산출하였으며, 그분의 부활도 그러하다. 네 가지 요소를 가진 거룩한 관유는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요소를 갖고 계심을 가리킨다. 그분은 죽으셨으므로 그분께는 죽음의 효능이 있다. 그분은 부활하셨으므로 그분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것들이 네 가지 요소들이다. 따라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속에서 인성은 네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다. 거룩한 관유는 하나의 예표로서 오늘날 그 영께서 신성, 인성, 죽음과 그 효능, 부활

과 그 능력을 갖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복합되어 거룩한 관유가 되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2장 27절은 우리가 주님께께서 기름 발라졌다고 말한다. 이 기름 바름이 거룩한 관유로 예표되신 복합되신 영이다.

복합되신 영에 의한 하나님의 경륜의 적용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신 후, 복합되신 영은 이 경륜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적용하신다. 그분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행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러 오신다. 그분은 복합되시고 완결되신 영으로서 신성, 인성, 죽음과 그 효능, 부활과 그 능력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계신다. 이 영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분의 죽음과 그 효능이 들어오고, 그분의 부활과 그 능력이 들어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 그리스도의 공급, 그리스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하는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구성된 모든 것을 포함한 한 포의 약이다. 히브리어에 따르면, 이 능력은 곤충이나 뱀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그 독(毒)을 퇴치시키는 능력을 가리킨다. 고대에 유대인들의 집에는 뱀이나 곤충들이 자주 들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방어의 목적으로 그들의 집 안에 계피를 두었다. 계피는 뱀, 지네, 전갈을 퇴치하는 냄새를 내뿜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사탄, 악한 영들,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사람의 합당한 삶, 25-32쪽)*